



기독교대한감리회

청파교회

교회세운날 1908.5.1

너희도 서로
남의 방을
씻기 위하여 한다.

하나님께서로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
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 곳
청파교회는 함께 하는 공동체입니다

주 일 낮 예 배 순 서

【 성령강림 후 2주 】 인도 1부 : 이범석 목사
 (2부 선찬양: 299. 하나님 사랑은) 2부 : 김재홍 목사

- 전 주 반주자
- 임재의 기원 626. 만민들아 다 경배하라(x3) 다 함께
- 예배로의 부름 김기석 목사
- ▲ 경배의 찬송 14. 주 우리 하나님 다 함께
- ▲ 공동기도 다 함께

자비하신 하나님, 날마다 새로운 날을 주시고 새롭게 살아갈 힘을 주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가 비록 육신을 입고 살지만, 영혼을 가진 존재임을 잊지 않게 해 주십시오. 늘 눈앞에 있는 일에만 사로잡히지 않게 하시고 자주 하늘을 바라보며 영원을 꿈꾸게 해 주십시오. 욕망의 노예로 살지 말게 하시고 진리와 자유를 따라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 주십시오.

주님, 분단된 조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같은 동포가 서로를 향해 총칼을 겨누고 싸운 지 벌써 72년이 지났습니다. 남과 북의 허리가 잘린 상처가 아직 분명하지만 많은 이가 그날의 비극을 잊어버렸습니다. 다시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막힌 담을 허무시고 나누어진 것을 하나 되게 하시는 주님, 이 민족이 반목과 갈등의 철조망을 거두고 주님 손에서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 참회의 침묵기도 다 함께
- ▲ 위로의 말씀 사61:1,2 인도자
- ▲ 교 독 문 10. 시편16 다 함께
- ▲ 영 광 송 2. 찬양 성부 성자 성령 다 함께
- 2부 대표기도 박홍재 장로
- 2부 응 답 송 찬양대
- 2부 찬 양 415. 십자가 그늘 아래 다 함께
- ▲ 성경봉독 삼삼 24:1~6 1부:인도자/2부:김광일 집사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봉 독 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 합 께

찬 양	I. 내가 주님을	김서영 청년
	II. 저 산으로 올라가네	청과 찬양대
말 씀	광야학교	김기석 목사
거둬 기도		다 함께
2부 찬 양	70. 피난처 있으니	다 함께
▲ 봉 헌	317. 내 주 예수 주신 은혜(1:5절)	다 함께
▲ 봉헌기도		김기석 목사
공동체 소식		김기석 목사
▲ 평화의 인사		다 함께
▲ 보냄의 말씀		다 함께


인 도 자 :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니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광야에서 살더라도 광야같이 척박하고 메마른 마음으로 살지 마십시오. 고난을 양분 삼아 더 품이 깊은 사람이 되십시오. 주님의 말씀을 그늘 삼아 살아가십시오. 광야를 넓혀가는 자가 되지 말고 광야 같은 세상 속에 피난처를 만드는 자가 되어 사십시오.


다 함 께 : 아멘. 광야 같은 세상에 대해 불평하면서도 광야 같은 사람이 되어 살아온 지난날의 모습을 반성합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욱 주님을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우리의 욕망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쉼 곳이 되어 주셨듯이 우리도 누군가의 쉼 곳이 되어 주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동행이 되어 주십시오. 아멘.

▲ 찬 양	635. 주의 기도	다 함께
▲ 축 복		김기석 목사

	설교	기도	성경봉독	인도
다음주	1부 김기석	공동기도	인도자	이범석
	2부 김기석	하현철	김윤정	김재홍

 청과교회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chungpachurch/>

 청과교회 주일 오전 11시 예배실황 - 교회 홈페이지 하단에 '예배실황' 클릭

 청과교회 카카오톡 채널 : 친구검색창에 '청과교회' 검색 후 채널 추가

※ 헌금계좌 : 새마을금고 9002-1751-3375-3 (예금주 : 청과교회)

